

[아프리카중동 비즈니스 정보]

콩고민주공화국, 전기에너지 산업 현황

콩고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영토가 넓은 국가로 8,3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200만 명이 수도인 킨샤사(Kinshasa)에 거주하고 있다. 2016년 GDP는 350억 달러로 추산된다.

콩고의 전화율(rate of electrification)은 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도심 지역이 19%, 외곽지역은 1%에 불과하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 수는 1,500만에 육박한다. 전체 전력설치용량 2,677MW 중 수력발전이 2,542MW, 화력발전이 135MW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10만MW 이상의 수력발전소 설치가 가능할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낙후된 시설로 전력생산 및 공급에 문제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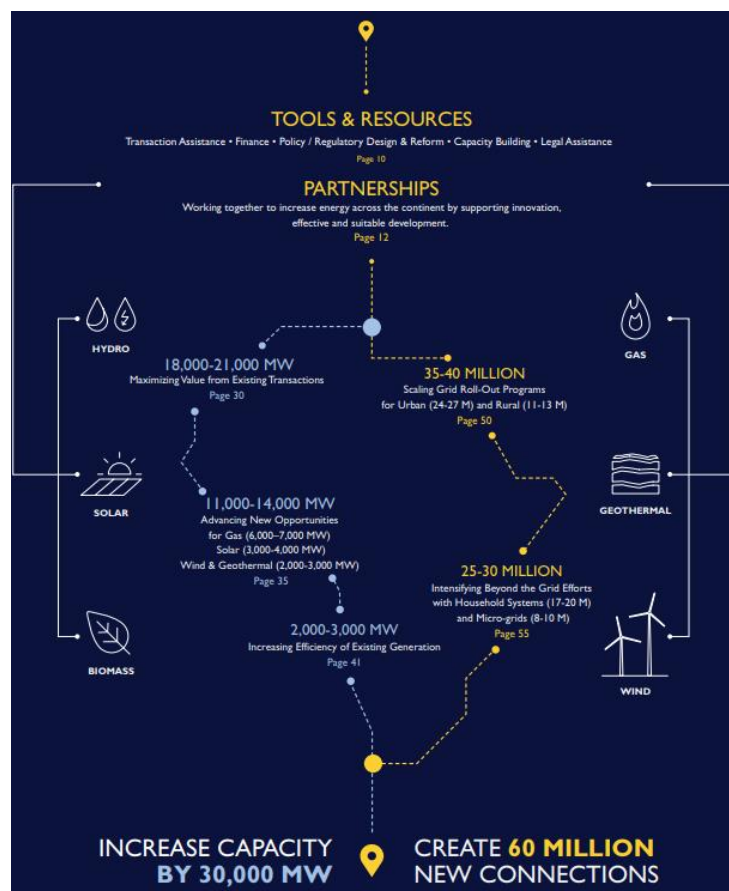
콩고는 전기생산량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으며 또한 전력 분배에 문제가 있어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송배전 시스템이 오래되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으며 나아가 심각한 에너지 절도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콩고에는 전국을 연결하는 송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으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거래 권한을 가진 콩고의 국영 기업 국가전력회사(이하 SNEL)에서 3개 지역별 그리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생산되는 전기도 발전가능용량의 절반 정도로 이는 고장 및 유지관리 문제로 인한 것이다.

전체의 30% 정도의 많은 고객들이 전기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2015년 상반기에만 생산된 전기 중 53%가 기술적 또는 상업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회계부문이 매우 열악해 SNEL이 적정량을 청구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콩고 에너지부문 투자의 적기로 판단되고 있으며, 인프라 프로젝트, 기술 지원, 국가전력망 또는 분배네트워크 개선 부문에 투자 잠재력이 있다. 제대로 된 전력망과 적절한 전력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투자 및 개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잠재적 투자자들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체 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가 SNEL와 파트너 협력을 맺어 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한 'Power Africa'라는 명칭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전력 공급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300만MW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갖춘 발전소를 건설하고 6,0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출처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콩고 에너지 생산 및 분배 부문, 2017.07.18

<https://www.export.gov/article?id=Croatia-Medical-Equipment-and-Pharmaceuticals>

USAID, 콩고 전력현황, 2018.03.28

<https://www.usaid.gov/powerafrica/democratic-republic-congo>